

쓰레기분리수거와 폐기물재활용 실태진단



김 천 주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명예회장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쓰레기 분리
수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한번 파괴
되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환경도 이제 안심하고만 있을 수 없
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존층의 파괴로 산
성비가 내리고, 공장의 매연, 자동차의 홍수
로 인해 대기오염을 일으켜 근래에는 도심
에서 스모그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
하수, 공장의 폐수등으로 인해 하천이 오염
되는등 사회 곳곳에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또 이를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들
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생활쓰레기 및 산업쓰레
기 공해문제가 우리 생활을 위협할 만큼 그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방안들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쓰
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의 잇점은 우선 버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품과
실제 가공처리 시설이 있는 재활용
품목은 몇가지 되지 않으므로 확실히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한 두가지
품목이라도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잘 버릴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리라 본다.

39

려지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다시 환원하여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 아직도 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서구의 다른나라와 비교해 볼때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연탄재등이 나오고 김치등 물이 많은 음식물의 식습관으로 인해 쓰레기양도 많고 분류하기에 복잡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원이 부족하여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작년 처음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를 본 주 부클럽에서 건의하고 홍보, 계몽했을때 정부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연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을까 우려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쓰레기문제에 대해 국민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현실태에서 쓰레기분리수거 문제는 빠른 속도로 국민들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본회에서 시범관리를 조성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때는 3가지 분리방법을 채택하여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쓰레기, 기타쓰레기로 분리하도록 하였는데, 초기에는 환경처나 서울시측의 의견이 달라 몇가지로 분리하느냐에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현재는 서울시의 행정적인 의견으로 재활용가능한 쓰레기와 기타쓰레기로 분리하도록 되었다.

현재 전국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72천톤으로 1인당기준으로 치면 독일, 일본의 2배 가량 되고 있고 특히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재활용될수 있는 종이나 고철 유리 캔제품등이 70-80%정도가 버려지고 있고 30%정도만이 재활용되어 쓰인다고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이야말로 우

리 국민이 꼭 이루어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단지 비닐에만 넣어 한꺼번에 가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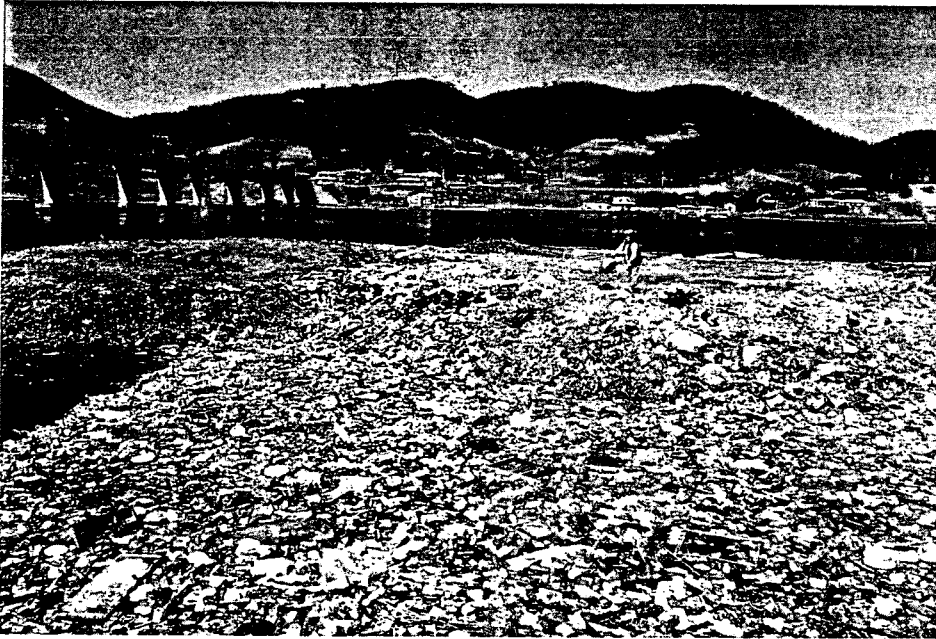
그러나 현재 작년부터 실시해 온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효과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적이 깨끗한 환경유지는 물론이거니와 매립지 부족으로 인한 쓰레기양을 줄이도록 하는데 있는데 현재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투입구를 봉쇄시킨후 쓰레기통을 놓고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는 단지 비닐에만 넣어서 버리는 것을 분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의식이 문제라고 본다.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는 정확히 분류해서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싸서 버리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 있다.

이렇게 된데는 정부에서도 재활용 쓰레기의 종류를 정확히 표시해 주거나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재활용 쓰레기와 기타쓰레기로 분리해 버리도록 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 혼돈을 가져와 재활용 품목을 다 다르게 버리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 품목과 실제 가공처리 시설이 있는 재활용 품목은 몇가지 되지 않으므로 확실히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한 두가지 품목이라도 다른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잘 버릴 수 있도록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적을 국민들에게 수시로 알려주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이렇게 절약이 된다고 알려주면 국민들 스스로 더 경각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또 깊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컨테이너 설치문제인데 요즘 아파트 투입구를 다 폐쇄한 상태에서 쓰레기통을 컨테이너로 바꾸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컨테이너는 운반의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나 주인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컨테이너속에 넣어버리고 그 컨테이너는 매립지로 그대로 옮겨져 묻히게 되어 분리되지않은 재활용쓰레기도 함께 묻히는 불합리가 발견되고 있다.

현재의 시설이나 장비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어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나 우리경제가 갑자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기존의 것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쓰레기분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행정당국은 각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기를 바라지 말고 한 종류라도 확실히 모아질수 있도록 계몽하고 실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청등에서 홍보하는것은 반상회등을 통해서 회보에다 홍보하는데 막연히 연탄재, 기타쓰레기, 재활용쓰레기로 분리하도록만 홍보하고 있어 완벽하게 폐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쓰레기 분리실시 이후 냄새나고 더럽던 쓰레기가 비닐로 포장되어 버려지고 있어 미화원들이 일하는데는 예전보다 여건이 좋아졌지만 현재 분리수거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한꺼번에 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분리를 해 놓으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짜나 시간을 달리해 한 번을 기타쓰레기만 수거해 가고 한 번은 재활용쓰레기를 처가서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여러

변 일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분리를 안하고 한꺼번에 비닐에만 포장해서 버리길 원한다고 하니 이런 문제 또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수거하도록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동네별로 재활용 쓰레기만 처리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보는데 쓰레기 분리가 잘 이루어지는 동네에서도 쳐갈때 한꺼번에 쳐가고 막상 재활용쓰레기를 모아 놓고도 어디다 연락해서 쳐가도록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재활용쓰레기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수거해 가는 경로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 유도하는 정책적 지혜 발휘돼야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국민들의 의식변화라고 본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섞어버리는 집이 많은 것이 문제다. 아파트의 경우는 단일통로를 이용하고 쓰레기통이 한꺼번에 모여져 있어 분리수거가 되기 쉽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 각 집집마다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다르고 이웃끼리 서로 연락이 잘 안되어 아직도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국민은 비닐에다 넣어 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것이 단순히 비닐포장만해서 버리는 것이지 실질적인 분리수거는 아니란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고철, 폐휴지, 캔, 유리병 등등은 따로 모아서 버리고 젖은 음식물 찌꺼기 등이 섞이지 않도록 따로 버리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홍보및 교육 형식적인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첫 걸음마를 디딘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화되도록 하려면 우선 첫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한가지라도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며 확산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캔종류 하나만이라도 모두 수거되어 재활용될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한품목 한품목 늘어가면서 쓰레기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을 유도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급히 정책을 결정했다가 하루아침에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꾸준히 실천해 가는 자세로 십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쓰레기분리수거만큼은 국민의식이 앞서있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이 무엇을 먼저하기 원하는지 분명히 그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만은 조기에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